

월요광장



이봉수 광주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

올해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토끼는 순하고 귀여우면서도 영리한 이미지 덕분에 예로부터 머리 좋은 동물로 여겨져 왔다. 별주부전에서 쫓겨 많이 입기를 번이 뛰어난 동물로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토끼는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계묘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계묘년을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풀이해 놓은 내용을 보면 새싹이 비가 살살 뿌려지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다. 뽕과 파릇파릇한 생명력의 느낌이 든다. 또한 자기를 드러내는 기운도 가지고 있다 하니 스스로를 꾸미고 다양한 어울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한다. 토끼처럼 바빠 움직여 주변 사람들과 탄탄한 인간관계를 구축해 보는 해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하다. 단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굳이 계획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센스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북면 가왕 프로그가 인기다. 노래 듣기는 물론 가수를 알아맞히는 재미가 여간이 아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은 양반의 위선과 횡포를 가면인 탈을 쓰고 꼬집었다. 만화 각시탈이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의 북면 연기는 압권이다. 약자인 주인공들에게 북면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상대와 맞서거나 풍자하기 적격이었다. 북면 가왕은 이런 북면에 착안하여 목소리만으로 정체를 알아맞히기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여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북면은 상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꺼림칙할 때도 많다. 은행털이범이나 좀도둑들만 북면을 쓰는 게 아니다. 흉악범들 대부분이 북면을 쓰고 범행을 자행한다. 실제 산 속에서 북면을 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각시탈, 배트맨, 켈절 조로 등의 주인공은 눈만 가린 정도이다. 표정 연기가 필요하고 키스 장면을 염두에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시설 만들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큰 정책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된 정책과 사업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센스가 중요한 때다. 도시 개발이나 재생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 등 향후 진행될 사업들을 바라보고 실현하는 방법 모두 바뀐 환경에 따라 대처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규모,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얼마 전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TV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비와 지방비로 투입되는 도시 재생 사업비는 실제 발표된 사업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 경제 기반형인 광주역의 경우 1조 156억 원 중 500억 원을 제외하고 부처 연계 사업이나 기금 등의 사업비이고, 백운광장은 879억 원 중 300억 원을 제외하고 579억 원, 서남동 인쇄의 거리는 1713억 원 중 1413억 원이 기금이나 부처 연계 사업 관련 사업비다. 다른 부처나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비까지 총액에 포함돼 있어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런 연계 사업들이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투자가 중단되거나 여러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큰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민은 허탈감과 배반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확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 도시 재생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평가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재생 사업의 방향성 특히 지방 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재생 사업의 형태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각 지역에 만들어진 각종 커뮤니티 시설들을 지역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운영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력을 잃고 시설들이 방치되면서 지역의 흥물이나 골칫덩이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기반형이나 중심 시가지형 사업들은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시민이나 지역 상인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같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설인 반면 주거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들은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앞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과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들도 지원이 끊어지는 시점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보여 주기식 사업들로 인해 비난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육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면 대왕

돈 복면이라고들 한다. 복면 가왕을 보면 복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얼굴만 가렸는데도 누군지 짐작할 수 없으니 말이다. 사실 복면이나 투명 인간은 세상의 주변인인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흔히 대중 또는 노동자로 표현되는 얼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쓴다. 고작 선거철이면 한 표를 가진 상품이고 경제적 의미에서는 단순 소비자로 취급당하는 우리, 그래서 복면 금지법에 맞서 얼굴을 찾자고 노동자나 민중이란 이름으로 거리에 나가 싸우기도 한다. 특이한 것은 복면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이 하잡 착용을 코란을 들어 강요하고, 이에 맞선 많은 여성들은 착용 반대 운동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물론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치 21세기에 학생들에게 교복이라는 율가미를 씌워 쉽게 관리하고 자신들과 구별지으려는 우리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북면이 사회를 바꾸기도 하였다. 쓰러진 이한열 열사를 불고 있는 이종창 씨처럼 80년대 상당수 젊은 이들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독재 정권과 싸웠다. 누구나 어느 정도 가면과 북면을 쓰고 살아간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어렵지 않게 가면이 벗겨진 본모습을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장자들의 무책임한 말들은 인

간격 고뇌 없이 자기 이름만 내세우며 떠들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면이 벗겨지고 만 풀이다. 직위가 개발에 편자다. 대통령 옷 역시 누구나 입는 게 아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있어 한들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선을 쓴 옷은 비린내만 났 뿐이다. 주인공이나 유명 인사만 북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얼마 전 교내 인사 발령이 있었다. 학교를 옮기는데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호불호 없이 사는데 어떤 무리는 좋겠다고 축하를, 또 어떤 무리는 잘 견디라고 위로로 보내 준다. 난 진실을 보여 주었는데도 그들 눈에 난 북면을 쓴 인간, 북면 대왕일 뿐이다. 얼굴도 넓게 보면 하나의 복면이다. 다양한 표정으로 내면을 감추는 가면인 페르소나, 옷 역시 제2의 피부라고 뎀을 감추는 북면이랄 수 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잘 감추고 살아간다. 그래서 호기심 가득 신비로운 반으로 상대를 그리고 세계를 탐색하고 탐험하며 살아간다.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 사랑해, 행복해, 힘내! 북면의 힘이다. 신 역시 인간 앞에서 여러 다양한 북면을 쓰고 존재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북면 너머 진실을 향한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보인다.

꿈꾸는 2040



김병수 위민연구원 이사·광산구 안권팀장

새해 초부터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야당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시도민들은 삭제에 의도적인지를 두고 교육부의 책임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 설왕설래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신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당선 이후에는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을 이끌고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던 극우 뉴라이트 소속의 김광중 씨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게 5·18을 지우기 위한 전조 단계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계승이 아닌 과거 보수 정권에서 행해졌던 5·18 폄훼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사태의 논란을 제공했던 교육부는 교육 과정 대강화의 일환으로 적정화·간소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연대로 '광주 정신'을 계승하자

있지만, 아무리 간소화라 할지라도 핵심 주제를 삭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쉬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은 올해로 43주기를 맞이한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당당히 등재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기록되어지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중국과 대만 홍콩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입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이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월 관계자들과 연석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의견을 덧붙이자면, 광주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 부산, 마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당한 아픔을 겪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끈 지역들과 연대해 민주와 인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작은 활동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극우로 치닫고 있다.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에서 민주와 인권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피를 나누기 위해 줄지어 헌혈하고, 외부와 모든 것이 차단된 상황에서 저마다 한 줌의 쌀을 내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었던 80년 5월 광주의 '대동 정신'이 그리워지는 이유다.

광주에 앞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경험한 제주 역시 독특한 '관당 문화'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외부 환경의 위협, 본토와의 차별에 맞서야 했던 제주 사람들은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웃사촌 이상의 끈끈함으로 상부상조하며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팽배, 디지털 세상 가속화 등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한 팍팍함은 '광주 정신'으로 일컬어지던 공동체 정신과 '관당 문화'를 점점 무력화시키고 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지켜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사회적 규범과 기초 질서마저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외면하는 자세는 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아시아의 용으로,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는 1인 독재, 1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게 '민주화의 모델'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 자랑스럽게 우뚝 서기 위해서는 보다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민주화를 이끈 도시와의 연대와 협력 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마침 윤상원 열사가 태어난 광산구는 올해 열사의 고향 전통마을에 '민주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5월 광주를 대변했던 윤 열사처럼 광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社說

홀로서기 힘든 자립 준비 청년 종합 지원 대책을

전남 지역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들이 주거·교육·복지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PC방을 전전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 하면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남도가 도내 아동양육 시설·공공생활 가정을 최소한 5년이 지나지 않은 309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자립 준비 청년 생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5.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18.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선 경제적 문제(3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거도 불안정했다. 친구 집이나 고시원, PC방·만화방, 여관 등에 머물고 있는 청년은 8.9%였고, 31.4%는 과거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는데도 응답자의 84.7%는 정부가 제공하는 매입·전세 임대 등 주거 지원

종합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대학교를 휴학·중퇴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43.6%는 '경제 사정'을 중도 포기 사유로 들었다. 특히 33%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인지 청년들은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자립 정착금과 자립 수당 등 경제적 지원(78%)을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들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말해 준다. 전남도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가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거·교육·복지 분야에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를 잘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멘토링 등 사회적 지지 체계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어 핵폐기장 밀어붙이나

정부가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내부에 고준위 방사성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특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성 물질로 최소 10만 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몇 차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세 개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자리다. 이들 법안은 핵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이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해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은 중간·영구 시설 용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임시 저장 시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영광에 원전뿐 아니라 핵폐기장까지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후한 한빛 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이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원전 내부에 생기면 부실시공의 대형 사인 한빛 원전 3·4호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역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 처리에 앞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지역민들의 참여는 배제됐다. 그럼에도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한 국가 현안이기 하지만 후역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부지 확보 등에서 지역민과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입지 선정에 앞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에게 신뢰부터 심어 줘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단연 쌀이다. 기원전 2~1세기에 걸쳐 있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유적(사적 375호)에서는 1995년 탄화미(炭化米: 불에 타거나 지층에서 자연 탄화된 쌀)와 벼 껍질이 다량 발견됐다. 유전학적 분석을 거친 결과 신창동 벼 품종은 자포니카(Japonica)로 밝혀졌다. 자포니카 쌀은 밥을 지으면 차진 것이 특징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길고 점성이 없는 인디카(Indica)와 대비된다. 김민구 전남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최근 '신창동 유적 시기의 한 반도 남북 농경문화' 논문을 통해 논길 끄는 해석을 제기했다. 한반도에서 선사-역사시대를 거치면서 벼농사에 큰 변화가 최소한 차례 이상 일어났고 가장 큰 기점은 신창동을 전·후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다. 신창동 시기가 농경문화의 전환기라는 견해다. 벼 낱알 크기 증가로 미뤄 벼 수확량 확보를 위한 품종 개량 등 노력이 결실을 맺은 시기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그동안 발견된 선사시대 탄화미의 낱알 평균 길이는 4.3mm 미만이었

으나 신창동 탄화미는 4.6mm에 달한다. 국내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주로 3.9mm 미만이 출토되고 있으나 신창동 탄화미의 경우 최저치가 3.9mm다. 길이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전국의 원삼국시대 탄화미와 비교해도 긴 편에 속한다. 벼 수확 도구가 발달형 돌칼에서 산(철제)으로 변화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발달형 돌칼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벼 수확 도구이다. 이 같은 줄기를 하나씩 훑어 내며 이삭을 따기 위한 것으로, 익는 시기가 다른 야생종 벼의 수확을 위한 도구로 해석된다. 신창동에서 발굴된 낫자루는 벼의 품종 개량이 이뤄져 벼가 동시에 익었음을 방증한다. 동시에 벼씨가 여무는 것은 재배종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즉, 신창동 고대인들은 동시에 익는 벼를 수확하기에 적합한 낫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신창동 농경문화의 '농도(農都)' 전담이 허형이 아님을 증명한다. 신창동 농경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해져 광주·전남 농업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한다.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4 columns: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u Ilbo.